

學校法人 城西大學

JOSAI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Promotion of Art and Science (JCPAS)

Newsletter

학교법인 죠사이대학 40주년기념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개설기념 특집호

Josai University Corporation

3-26 Kioi-cho, Chiyoda-ku, Tokyo ☎03-6238-1300 <http://www.josai.jp/>

No. I

심포지움

「젠더로 읽는 <韓流> 봄 - 지금 왜『겨울연가』인가」

2005년 2월 26일 (토) 오후 1시 30분 ~ 오후 4시 30분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 B1F 홀

1. < 이야기 >로 써의『겨울연가』
- 2.『겨울연가』의 여성상의 해석
3. 준상으로 보는 남성상의 새로움
4. 지금 왜 < 한류 >인가
5. < 겨울연가 온사마 > 봄을 읽고

- 패널리스트 : 城西國際大學 學長 水田 宗子 (미즈타 노리코)
 패널리스트 : 東京女學館大學 教授 尾形 明子 (오카타 아키코)
 패널리스트 : 法政大學 講師 岡野 幸江 (오카노 유키에)
 패널리스트 : 東京大學 教授 姜 尚中 (강 상중)
 특별게스트 : 韓國 드라마 評論家 田代 親世 (타시로 찌카코)

인사말씀 : 矢木 公子 (야기 기미코)
 사 회 : 長谷川 啓 (하세가와 케이)
 北田 幸恵 (키타다 유키에)

공동개최 : 城西國際大學 ジェンダー・女性學研究所
 城西國際大學 學院 女性學專攻
 城西短期大學 (城西apse كال리지)



심포지움 「젠더로 읽는 <한류> 봄 - 지금 왜『겨울연가』인가」는 기오이죠 캠퍼스 개설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城西國際大學 ジェンダー・女性學研究所／城西國際大學 大學院 女性學 專攻／城西短期大學의 공동개최로 2월 26일 (토)에 동경기오이죠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한·일 우정의 해를 맞이하여 현재의 일본 사회 현상으로 되고 있는 <한류> 봄을 젠더의 시점으로 해명해 이 봄을 만들어 낸 중장년 여성들이 직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의 일본 사회의 상황과 한·일의 역사를 밟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은 여성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써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획에서부터 2개월간 준비하고, 광고 활동도 겨우 2주일정도 밖에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연가는 대단히 인기가 있어 참가자는 순식간에 300명을 넘어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되었다. 홀 안은 만원으로 별실의 모니터화



면으로 홀 안의 전경을
보게 되었을 정도이다.

패널리스트는 미즈타
노리코 城西國際大學 學
長, 東京大學 教授 강
상중씨, 東京女學館大學
教授 오카타 아키코씨,
法政大學 講師 오카노
유키에씨, 특별게스트로

드라마 評論家 타시로 찌카코씨도 참가해 주셨다. 오후 1시반에 시작해서 4시반 종료예정이, 5시가 넘어서까지 연장되어 열기 가득한 패널리스트 디스커션에 전개되었다.

미즈타 학장님은 「<이야기>로 써의『겨울연가』」라는 주제로『겨울연가』를 현대의 동화로써 이야기의 구조를 해명해, 주인공들이 주변의 여러가지 장애를 극복하면서 사랑을 이루어 가는, 소설의 전신 로멘스=이야기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마레비토(이방인, 타관사람, 타민족의 신화), 아버지찾기/어머니와의 이별, 고아의 자기탐구, 죽음과 소생/과거·기억 상실과 방황, 형제자매의 사랑, 맹목과 낙원신화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은 가족이라는 정치제도와 개인의 의사, 가족의 힘과 개인의 연애가 대립하는 세계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다.

尾形 (오카타) 씨의『『겨울연가』의 여성상의 해석』에서는, 등장하는 8인의 여성들을 언급하고 특히 여주인공의 연적 채린의 심리와 이야기에서 중요시되는 미혼모로, 남주인공의 친모 강미희의 복잡한 마음의 행방, 내 자식을, 사랑하는 남자아이라는 것을 자신에게도 주위에도 납득시켜 그것을 지탱해서 살지 않으면 안되는 여자의 비애를 분



경험도 없을 뿐더러 부친이 부제한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남성성과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없는 상냥하고 포옹력이 가득차 있는 것, 그것이 겨울연가 온사마 인기의 요인이지 않은가라고 언급하고 있다.

강상중 교수는, 지금 왜 <한류> 인가라는 주제에서 포스트 식민주의 시점으로부터 말을 시작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중요 후에도 한국전쟁으로 인해 나라와 가족을 분단하고, 냉전시대에는 일본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는 방파제의 역할을 짊어지게 되어 한국국민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점, 지금도 묻혀진 기억을 파내는 역사의 고고학이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재검토가 시작되어 한국의 드라마도 그런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 한국은 이제까지의 일본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일본은 역으로 과거의 한국에 뒤돌아가고 있다는 점등이 언

석했다. 또,岡野(オカノ)씨의 「준상으로 보는 남성상의 새로움」에서는 기억상실후의 주인공이, 가부장제의 전통이 뿌리깊게 남아 있는 한국사회의 기억이 지워졌고, 유럽·미국생활이 길고, 군대

급되어, 주연화되어 왔던 일본의 중장년 여성의 한류붐은 정치와 남성들이 할 수 없었던 한·일의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다. 「<겨울연가 온사마> 붐을 읽고」에 대해서 이야기한 田代親世(タシロ シカコ)씨도 어딘가 소외감을 안은 중장년 여성의 심금을 울리는 대목이 있지 않았나라고 말하고 배우들의 기품, 말씨의 아름다움과 정신성·묘사의 정중함과 여백, 특히 애정표현의 청결함 등을 지적했다.



이상, 현재 일본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중장년 여성들의 희구와 행동의 본질적 해명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지만 겨울연가, 한류붐에 관해서 아카데미의 장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심포지움으로써는 우선 대성공으로 마쳤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즈타 학장님을 비롯해 JIU 젠더·여성학 연구소 및 대학원 여성학전공의 교직원과 대학원생, 본부의 직원 한분 한분을 중심으로 단기대학의 전교직원, 경영학 및 별과의 교원분들의 총력으로 이루어진 심포지움이었다.



岡野 幸江 강사님



尾形 明子 교수님



水田 宗子 학장님



姜 尚中 교수님



田代 親世 평론가님

국제 심포지엄

「21세기 아시아와 일본의 대학과 인재개발」

2005년 2월 14일(월) 오후 1시40분~4시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 B1F홀

패널리스트 : 東西大學 國際關係大學院 教授 張濟國 (장 제국)

패널리스트 : 龍華科技大學 管理學部 教授, 中華中小企業研究發展學會 理事長 黃深勳 (Huang Sheng-Shiung)

패널리스트 : 静岡産業大學 學長 大坪檀 (오오쓰보 마유미)

패널리스트 : 城西大學 經營學部 教授, 中国世界經濟學會 理事, 江蘇省 海外交流協會 理事 張 紀濤 (조 키정)

사 회 : 城西大學 副學長 渡辺好章 (와다나베 요시아키)

주 최 : 城西短期大學

城西大學 창립 40주년, 죄사이 베스칼리지 발족, 및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 개설을 기념하여 2월 14일(월)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 B1F홀에서 관계자분들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 표기의 심포지움이 성대히 개최되었다.

(1) 문제의식과 테마의 의미

대학간 글로벌 경쟁의 격화와 구태의연한 대학 도태의 대혼란기에 근린 아시아 각 국의 대학 사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산업 구조와 인구 구성의 변용, 국제 정세와 지구 환경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21세기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 고등교육기관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이 심포지움의 근본에 자리잡고 있는 문제 의식으로 테마의 의미이다.



(2) 패널리스트

패널리스트은 동아시아의 한국, 대만, 중국에 있어서 풍부한 국제경험을 가지고 대학경영의 중추에 계신 인물로 선정했다. 동서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국제협력위원장의



渡辺 好章 부학장님



장 제국 교수님



黃 深勲 교수님



張 紀潯 교수님



大坪 壇 학장님

장제국 선생님은 죄지위싱턴대학 로스쿨을 졸업하셨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그리고 慶應義塾法學 大學院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셨다. 더욱이 伊藤忠商事 株式會社와 미국 Molex 株式會社의 특별연구원과 변호사로써 국제적 활동을 폭넓게 하셨다.

静岡産業大學 大坪(オオツカ) 學長님은 캘리포니아대학 경영대학원에서 MBA을 취득하신 후, 주식회사 브리지스톤에 입사. 경영정보 부장, 미국 브리지스톤의 경영책임자, 선전부장을 역임, 그후 静岡県立産業大學 경영정보학부의 교수, 학부장, 학장보좌로 근무하셨다. 1998년부터 静岡産業大學에 월임하셔서 현재에 이르고 계신다.

전 台湾国立空中大學 黃深勲(Huang Sheng-Shiung) 學長님은, 拓殖大學에서 상학박사를 취득. 国立空中大學에서은 교무장, 총무장, 학장을 역임. 현재, 龍華科技大學 관리학부 강좌교수를 역임함과 동시에, 중화중소기업 연구발표학회 이사, 중화민국 마케팅학회 이사, 중화민국 광고학회 이사의 요직을 정력적으로 하셨다.

城西大學 経営學部의 張紀潯(조 키정) 教授님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 졸업후, 동 대학의 교사에 취임. 1978~80년의 문화대혁명후, 처음 중국정부파견 국비유학생으로 大阪外語大學에서 일본학을 전공. 경제무역대학에서 전임강사로 본국으로 돌아가셨고, 1985년에 일본에 재입국해 동경경제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 현재 모국의 경제무역대학에 객원교수와 연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중국세계경제학회 이사, 江蘇省 해외교류협회 이사, 일본 중소기업 해외투자 지도원, NPO법인·일중경제발전중심 이사장으로 중일간의 지적교류에 진력하셨다.

(3) 각 국대학사정의 현상과 문제점(전반)

각 국에 공통적인 문제점은 대학간 과도경쟁에 의한 합병과 도태, 양적확대에 의한 질적저하, 졸업후의 취직난과 불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선행투자에 합당한 상응의 취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기러기 아버지」가 증가하고 있다. 아버지 혼자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수입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식과 부인에게 송금을 하고 아버지는 여름휴가와 정월에 모국과 미국을 왕래한다. 또, 제조업이 중국등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국내에 취직이 부족해서 몇 천명의 규모로 「기업 인턴십」의 이름으로 중국과 그외의 지역으로 학생을 보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직 그렇게 까지 심각하지는 않지만 「대출프리터: 정식 직업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증가와 「직업전문학교」의 난립은 그런 징후이다. 좀더 상황이 심각해 진다면 1년간에 취득할 수 있는 MBA을 찾아서 미국유학이나 그것을 위해서 e-런닝이 증가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대만에서는 일본 유학의 열기가 식어 캐나다, 오스트레

일리아, 미국등 영어권의 대학유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부터는 아마 중국과의 연계를 깊게 해서 북경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생이 대거 중국으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진출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대만에서도 외국교육기관의 진출에 의한 경쟁격화로 인한 대학의 합병이 수행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도시부에 있는 유명대학에 학생이 쇄도해 지방대학은 합병에 의한 연명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취직할 곳을 공산당 정부가 결정하므로 精華大學이나 북경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등의 등용문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한편, 「회구파(回龜派: 해외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자)」가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정부요직에 진출하는 등으로 해외유학이 취직에 영향을 주는 면도 있다.

(4) 21세기 대학간 글로벌경쟁, 인재개발 등(후반)

21세기 대학사정의 조류분석과 현실적 대응책에 대해서 패널리스트에 의한 10항목정도의 설명이 있었다. 일본 대학의 장래에 대해서 이것들을 독선적으로 총괄하면 다음의 조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입구대책(입학시험)부터 출구대책(취직알선)으로 대학의 과제가 이동한다.

생산자의 윤리가 통용하는 「파는 쪽 시장」 소비자의 니즈가 우선하는 「사는 쪽 시장」에의 수급관계가 역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일에서 현저하다. 그렇게 되면 학생개인의 니즈에 합당한 「좋은 기업으로의 취업」을 의도로 한 표적시장의 세분화와 커리큘럼의 차별화는 필연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취직에 유리하면 세계 각국에 일본인 유학생이 대량으로 유학갈 것이다.

2. 교육기관의 글로벌화로 문부과학성의 교육 제도 규제는 유지할 수 없다.

대장성이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콘트롤 할 수 없게된 것과 같이 문부과학성의 국립대학편중의 「호송선단방식: 護送船團方式 (약소금융기관에 발을 맞추어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금융기관 전체의 존속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본의 금융행정)」은 통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20세기와 함께 임종했다. 사실, 중앙교육심사회는 『일본 고등교육의 장래성』(2005년 1월 28일)에 문부과학성의 역할은 「고등교육계획과 각종규제」의 시대로부터 「장래성의 제시와 정책유도」의 시대로 이동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3. 그 결과 대학경영체제가 혁신된다.

국립대학의 독립행정 법인화가 그 증거이다. 사립대학에서 요구되는 것은 자기책임과 교육효과의 평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립대학 자신이 구폐를 버리고 근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경영에 책임을 지고 기동적으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저마다가 개성을 가진, 자기 스스로 살아남지 않으면 안된다. 아마도 가까운 장래, 프로의

매니지먼트에 의한 대학경영이 주류로 될 것이다. 일본의 유력기업에는 충분히 그런 의사와 능력이 있다.

4. 그 결과 학년별 커리큘럼제도가 혁신된다.

이미 해외자매대학교와의 교환유학생에게 단위호환이나 학위를 인정하고 있고 단위의 「디포지트 제도」도 서서히 시작하고 있다. e런닝이 질과 양적으로 충실한 생애교육으로 중시될 것이다. 특히 사회인에 있어서 스텝업이 되는 전문직의 자격취득강좌에 인기가 모여지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6·3·3·4 제도」는 공허로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왜 대학은 4년제인가. 우수한 학생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하여 사회에 내보내 활약하게 하는 편이 국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대학의 재정 수익은 뿌리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지금 불황기에 있는 것이 아닌 전환기에 있다. 메이지유신과 전후의 사회혁신을 잘 해결해 나온 것 같이 일본은 반드시 제3의 소셜이노베이션을 완성할



것이다.」라고 피터 드럭커은 예언하고 있다. 일본의 진가를 발휘할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부터 5년은 계속 될 것이다.

강연회

「대학교육과 벤처 육성」

2005년 2월 21일 (월) 오후 3시 ~ 4시 30분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 B1F홀

강사 : 기요나리 타다오 (清成 忠男: 法政大學 総長, 大學基準協会 会長, 日本벤처學會 前会長)

주체 : 城西大學 大學院 経営學究科 비지니스 이노베이션 研究会

2005년 2월 21일,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 B1F홀에서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 개설기념 특별강연회가 대학원 경영학연구과 비지니스 이노베이션연구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대학에서의 벤처교육은 미국에서는 이미 1967년에 시작하고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1992년에 法政大學에 처음으로 벤처교육을 실시하는 학부가 생겨난지 얼마되지 않았고, 역사도 그리 길지않다.

기업가 교육으로 대표되는 벤처교육은, 일본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이 왕성했던 것으로 시작하여, 중소기업을 전전하면서 이곳 저곳에서 경험을 축적한 후에 창업하는 패턴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치 않았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산업의 혁명기이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기업가를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가 긴급의 과제로 되고 있다.

강연에서는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럭커와 습페터의 대화, 그리고 혼다 자동차 전사장인 혼다 쇼이치로씨와



기요나리씨와의 교류등이 소개되어 기업가의 조건은 「의지가 강함」, 「낙관론적임」, 「하드 워커임」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최근의 미국에서의 벤처기업의 동향과 벤처교육의 방법, 그리고 일본의 학생벤처 기업가의 사례등도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업가교육의 계기는 속성되어 왔고 기업가가 되려는 인재의 형성과 육성은 학부, 대학원 뿐만 아니라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밀하면서 강연의 끝을 맺었다.

이번의 강연회은 벤처학회 회원등 학외의 여러분, 본대학의 교직원, 대학원생, 학부학생등 다수의 참가자가 있었다. 또, 질문 응답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강연회은 성황리에 종료했다.

덧붙여 본 강연회의 상황은 자매학교인 城西國際大學(東金캠퍼스)에도 동시중계되어 동 대학의 약 100명의 교직원과 학생이 열심히 청강하였다.



강연회

「DNA의 시대를 맞이하여」

2005년 4월 16일 (토) 11시 ~ 12시 30분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 B1F홀

장사 : 카즈사DNA 연구소장 겸 이사장 大石 道夫 (오오이시 미찌오)
주최 : 學校法人 城西大學 法人本部



4월 16일 (토) 11시부터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 B 1 F 홀에서 카즈사DNA 연구소 소장 (겸 이사장) 오오이시 미찌오씨를 강사로 초청해 학교법인 죄사이대학 창립 40 주년을 기념하여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많은 일반 참가자, 또 죄사이대학과 죄사이국제대학의 교수님과 학생, 나아가 가까이에 계신 유식자분들의 참가로 최첨단 과학을 기초로 한 「철학」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강사님은 먼저 과학물질 DNA에 대해 개설하셨고 DNA로 이루어진 동식물과 인간의 게놈의 전용이 해명되었다는 것 (인간에 대해서는 2003년) 을 설명하셨다. 게놈의



해명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몇 백 년 걸렸던 식물의 품종개량이 순간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는 치료할 수 없었던 유전병의 치료법을 발견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등 DNA 연구의 과학적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심과 동시에 인간과 원숭이의 DNA가 다른 점은 극히 적다는 것, DNA가 사람의 성격을 결정지울 수 있을까 등의 사회적 문제도 DNA 연구의 발전에 의해서 뚜렷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셨다.



기념 심포지움

「成瀬巳喜男 (나루세 미키오) 生誕百年」

2005년 5월 28일 (토) 오후 1시 ~ 5시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 B 1 F홀

제 1부 「나루세 영화의 매력을 말하다——나루세 영화의 기법과 디테일에 대해서」

영화평론가 佐藤忠男 (사또우 타다오) VS 영화감독 恩地 日出夫 (온찌 히데오)

제 2부 「소시민 영화의 흐름——일상속의 Dramaturgie」

여배우 香川 京子 (카가와 쿄코) VS 영화평론가 佐藤 忠男 (사또우 타다오)

제 3부 「나루세 영화의 히로인들——林英美子 (하야시 후미코) 와 成瀬 (나루세) 영화」

평론가 川本 三郎 (카와모토 사부로) VS 城西國際大學 學長 水田 宗子 (미즈타 노리코)

사회 城西國際大學 メディア學部 助教授 村川 英 (무라카와 히데)

주최 城西國際大學 メディア學部

협찬 주식회사 키네마旬報社

5월 28일 (토) 오후 1시부터 4시간에 걸쳐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에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홀 안에서는, 수강자 160명과 별실시청자 85명, 나아가 JIU 프로젝션 홀에 중계시청자 45명의 참가가 있어 열기 넘치는 심포지움이 되었다.

심포지움은 3부로 구성되어 제 1부에서는 佐藤忠男 (사또우 타다오) 氏와 恩地日出夫 (온찌 히데오) 氏가 「나루세 영화의 매력을 말하다——나루세 영화의 기법과 디테일에 대해서」에 대해 말씀하시고 1950년대의 일본의 영화상황과 나루세 영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당시 신진영화평론가였



던 사또우 타다오씨, 또 신인감독 온찌 히데오씨의 체험담은 당시의 영화계의 귀중한 증언이 되었다.

제 2부에서는 香川京子 (카가와 쿄코) 氏와 佐藤忠男 (사또우 타다오) 氏가 「소시민 영화의 흐름——일상속의 Dramaturgie」

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카가와 쿄코씨는 영화 「오카아상」의 체험을 말하고 사또우 타다오는 소시민 영화와 나루세 미키오의 관계를 일본 영화사의 문맥 중에서 증언했다.

제3부에서는 川本三郎(카와모토 사부로) 씨와 水田宗子(미즈타 노리코) 학장님이 「나루세 영화의 히로인들 林茉美子(하야시 후미코) 와 成瀬(나루세)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카와모토 사부로씨는 나루세 영화와 하야시 후미코의 유사점을, 미즈타 노리코 학장님은 하야시 후미코의 세계은 나루세



佐藤忠男 평론가님 恩地日出夫 감독님 香川京子 님 川本三郎 평론가님

영화속에서 무언지 미흡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등, 백열하게 토론이 전개되어 대단한 호평으로 심포지움이 이루어 졌다.

강연회

「Kurosawa in Black and White

黒澤 明 (크로사와 아키라) ——흑백의 세계에 끌려서——」

2005년 6월 4일 (토) 오후 1시반~3시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 B1F홀

강사 : Paul Anderer (Columbia University) 교수

주최 : 城西國際大學 人文學部 후원 : 千代田区

인문학부에서는 일본의 근대문학, 영화평론, 문예평론, 일본 문화비판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Paul Anderer 박사를 초빙하여 2005년 6월 4일 (토),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 주제는 『Kurosawa in Black and White 黒澤 明 (크로사와 아키라) ——흑백의 세계에 끌려서』

크로사와 아키라는 20세기 일본 영화감독계의 3거장이라고 불리지고 있으나, 왜 크로사와 감독이 흑백영화의 제작에 집착했는가, 왜 흑백 결작이 탄생되었는가, 『아카히게(赤ひげ)』『스가타 산시로(姿三四郎)』 등의 작품을 상영하면서 해설이 이루어졌다. 크로사와 감독은 형의 죽음을 체험하고 관동대지진과 전쟁에서 많은 인간의 죽음을 목격했다. 『라쏘몬(羅生門)』에 있어서 사무라이의 죽음, 그 종막에서 그려진 아기의 출현이 의미하는 것, 죽음과 삶, 어둠이나 공포를 타파하는 한줄기의 빛, 일본 문화나 일본 사회를



그리는 것에 의해서, 보는 자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했던가, 크로사와 감독이 소중이 여긴 강력한 영상과, 그 심층에 감추어진 구제의 힘에 대해 언급하고 외국인이면서 일본인 이상 깊은 이해와 통찰력에 크로사와 영화의 매력에 접근했다.



풀 앤더러 교수님

강연회에는 영화평론가의 佐藤忠男(사또우 타다오) 씨, 크로사와 영화에 출현하였던 油井昌由樹(유이 마사유키) 씨가 동석하셨고 사또우씨로 부터는 훌륭한 코멘트를 받아, 대회장을 가득 메운 청중도 감격이 한층 더해나갔다. 또, 기오이죠 캠퍼스 홀을 가득 메운 다수의 크로사와 팬들로부터는 크로사와 영화속에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 크로사와 영화의 높은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다, 아직 본 적이 없는 크로사와 영화를 보고 싶게 되었다. 흑백영화를 재검토하려고 생각한다라고 감상을 받았다.

또한, Anderer씨는 6월 8일 (수)에 城西國際大學에도 오셔서, 근대 문학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많은 학생이 선생님의 강연회를 듣고, 미국에서 일본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또 현재 국제 일본학에서 일본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강연회

「21세기의 비지니스와 인재」

2005년 6월 17일 (금) 6월 20일 (월) 오후 1시반~3시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 B1F홀

강사 : 6월 17일 아사히 맥주 주식회사 대표회장 겸 CEO 福地茂雄(후쿠찌 시게오)

6월 20일 花王(카오) 주식회사 전대표회장 常盤文克(토키와 후미카쓰)

주최 : 城西國際大學 経営情報學部 후원 : 千代田区

경영정보학부 주최 강연회 「21세기의 비지니스와 인재」가 기오이죠 캠퍼스에서 실시되었다.

6월 17일 (금)과 6월 20일 (월)의 이틀간에 걸쳐서 일

본의 톱 경영자로 계신 아사히 맥주 주식회사 대표회장 겸 CEO 후쿠찌 시게오씨와 카오 주식회사 전대표회장 토키와 후미카쓰씨를 모시고 기오이죠 캠퍼스에서 「21세기의

비지니스와 인재』라는 제목으로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두 분의 정상으로 부터 기업인으로써의 삶의 방향, 지금 학생 시대에 무엇을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가, 나아가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셔서 대단히 감동적인 말씀

을 해 주셨다. 또 대회장의 학생으로부터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두분으로 부터 정성을 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두분이 공통으로 제안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에 있어서 기업은 손님이다.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 대학이 만들어 내는 제품은 졸업생이다. 이 졸업생에 대해서 대학은 품질을 보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생의 품질이라는 것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인재, 문제 해결 능력,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가능한 인재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에



福地 茂雄 회장님



常盤 文克 회장님

서는 좀더 교양과목의 교육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 기업이 가장 필요한 인재는 프로페셔널이다.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전체를 본 후에 자신의 포지션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인재이다. 어떤 일이라도 프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은 이 프로페셔널의 집단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 의식을 가지고, 일이 가능한 인재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에서는 일의 프로 의식을 확실히 가르쳐 주십시오.

이와 같은 제언을 확실히 받아들여 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경영학 정보학부에서는 지금부터 기업과의 깊은 관계를 활용해서 의의있는 강연회를 기획 해 나갈 계획이다.

『돈키호테』 출판 40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Don Quixote, East and West』『돈키호테』의 현재——동서쌍방에서』

2005년 6월 25일 (토) 오후 1시 ~ 5시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 B1 F홀

1. 『보바리 부인』과 『돈키호테』의 로망스적 해석

미셸 타넨바움 (城西國際大學 比較文化研究所 객원연구원)

2.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삽화 : 『돈키호테』의 도례에 의한 삽화의 케이스에 대해서』

레이첼 슈밋트 (캘거리대학 조교수)

3. 한국에 있어서 『돈키호테』의 수용

박 철 (한국외국어대학 교수)

4. 『돈키호테』와 소세키(漱石)

쿠라모토 크니오 (関西外國語大學 교수)

사 회 : Herbert Plutschow (城西國際大學 人文學部教授 · 比較文化研究所 所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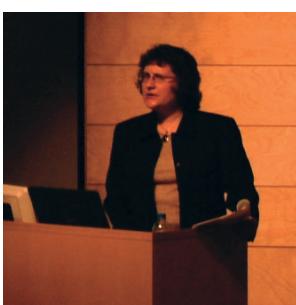
공동개최 : 城西國際大學 比較文化研究所

城西大學 語学教育センター

후원 / 千代田区, 스페인대사관, 재단법인 일본 스페인협회

2005년 6월 25일,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에서 「『돈키호테』의 현재—동서쌍방에서」의 제목으로 한 심포지움이 내빈으로 上智大學 교수님이신 Jaime Fernandez씨와 일본 스페인협회 상무이사 江崎桂子 (에자카 케이코) 씨를 시작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찾아주셨다. 이 심포지움은 校法人 城西大學 創立 40周年과 기오이죠 캠퍼스 개설, 및 『돈키호테』 출판 400주년을 기념으로 개최되었다.

심포지움은 코디네이터인 城西國際大學 人文學部의 Herbert Plutschow 교수에 의해, 본 심포지움 개최의 취지설명으로부터 시작했다. 계속해서 33년간, 「맨 오브 라만차」를 연기해온 배우 松本 幸四郎 (마쓰모토 코우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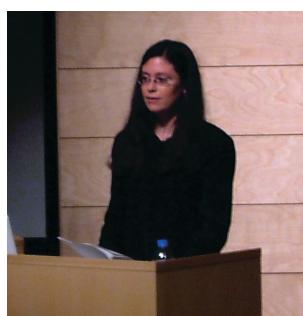
레이첼 슈밋트 조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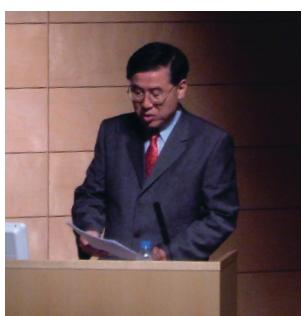
藤本 邦夫 교수님

씨로 부터 「꿈이라는 것은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의지이다」라고 끝맺음의 메세지를 전했다.

강연은 전후반, 각각 2명의 강연자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전반의 미셸 타넨바움씨는 『돈키호테』와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을 비교하며 플로베르가 자기의 작품을 로망스주의적 이상으로부터 일탈하게 하기 위해 『돈키호테』의 고귀한 이미지를 부정한 것을, 구체적 예를 들어 지적하였다. 계속해서 레이첼 슈밋트씨는 비주얼 이미지가, 아티스트가 속해 있는 문화의 제약을 받는 작품으로써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가 어떤가를, 『돈키호테』의 삽화를 그린 프



미셸 타넨바움 연구원



박 철 교수님



랑스인의 구스타브 도레의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의 후반에, 박철씨는 한국에 있어서『돈키호테』의 이해의 극적이라고도 말하는 변화—무분별하게 단순화된 광인이라는 이해로 부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력질주하는 인간이라는 이해로—에 대해서 상술하였다. 또, 쿠라모토 크니오씨는 소세끼(漱石)의『돈키호테』에 대해 평하고 그의 특이성, 그의 작품으로써의『돈키호테』의 영향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4분에 의한 연설후, 코멘테터로써 참가하고 계신 하이메

페르난데스 上智(조치)大学 교수님에게도 질문과 응답이 행해졌다.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돈키호테』는 무엇을 보여 주고 있는가,『보바리 부인』은 왜 사실주의 대표작품에 충족했는가 등, 활발한 의논이 오고 갔고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할애받지 못한 점에는 대단히 안타까웠다.

신포지움 폐막 후, 티파티가 열렸다. 신포지움의 흥분이 식지 않는 많은 참가자가 모여 대회장의 이곳저곳에서 담소의 둘레가 형성되었다. 온화함과 학문적 긴장이 넘쳐흐른 본 신포지움은 참가자에 깊은 지적만족을 주었고 무사히 종료되었다.



전후 60년 심포지움

「영화에서 보는 여성들의 원폭체험과 그 기억으로 부터」

7월 29일 (금) 오후 1시반~4시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 B 1 F 홀

페널리스트 : 영화감독 吉田 喜重 (요시다 키주)

明治学院大學 무학부 예술학과 조교수 斎藤 綾子 (사이또우 아야코)

南캘리포니아大学 영화학부 교수,

城西國際大學 메디어학부 객원교수 리피트 水田 堯 (미즈타 아키라)

주최 : 城西國際大學 젠더·여성학연구소

협력 : 城西國際大學 메디어학부 / 城西國際大學 인문학부

후원 : 주식회사 키네마旬報社

히로시마·나가사카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때로 부터 60회의 여름을 맞이한 금년, 城西國際大學에서는 전후 60년을 즈음하여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 홀에서 심포지움「영화에서 보는 여성들의 원폭체험과 그 기억으로 부터」를 개최하였다.

심포지움에는 영화감독 吉田喜重 (요시다 키주) 씨, 明治学院大學 助教授 斎藤綾子 (사이또우 아야코) 씨, 南캘리포니아大学 城西國際大學 客員教授 리피트 水田 堯 (미즈타 아키라 겸 사회자)를 초대하여 약 2시간반에 걸쳐서 원폭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영화 표현에 대해서 강연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날은 폭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200명을 넘는 청강자가 대회장을 찾아 주셨기 때문에 별실에서 시청하는 분들이 눈에 띄는 등, 대단히 성황리였었다.

페널리스트의 吉田 喜重 (요시다 키주) 씨는 심포지움이 시작하기 전에 동 홀에서 상영회를 하였고 영화『거울의 여자들』(2003년)의 감독이기도 하다. 요시다씨는 12살 때에 고향인 후쿠이시내에서 공습을 받고 소개처의 농촌에서 원폭투하의 뉴스를 들었다. 자신의 전쟁체험을 토대로,



원폭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운명하신 분들이라는 것, 인간은 전부를 표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등을 말씀하셨다. 과거 반세기 동안, 요시다씨는 「당신에게는 원폭을 그릴 권리가 있는가」라고 자문한 결과, 드디어 영화『거울의 여자들』(2003년)를 촬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작품에서 핵이 되는 이미지도 스토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스치듯이 교차하는 3세대의 여성들의 생생함이 그려질 뿐 그녀들의 상호이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관객은 영화를 본 후에 만든 쪽의 주장을 받아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될 수 있다. 요시다감독은 「메타」라는 그리스어를 인

용하면서 「메타·히로시마」, 즉 스칠듯, 스칠듯 접근할 수 없는 장소로 써의 「히로시마」를 그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관객이 영화로 써는 재현하지 못한 히로시마의 참사를 도려내어 다양한 해석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끝맺음했다.

계속해서 齊藤綾子 (사이또우 아야코) 씨는 원폭을 그린 영화로 써『원폭의 자식』(進藤兼人 (신도우

가네토) 감독 1952년), 『이십사시간의 정사』(Alain Resnais 감독 1959년), 『검은 비』(今村昌平 (이마무라 쇼헤) 감독 1989년), 『거울의 여자들』(吉田喜重 (요시다 키주) 감독 2003년) 등의 작품을 뽑아들고, 이것들의 영화 속에서는 여성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짜여져 왔다는 것을 공통항목으로 써 읽매고 있다. 『거울의 여성들』을 제외하면, 많은 경우 여성은 자신이 살아 남아 낭아 「갚아야 할 빚」을 안고, 또 원폭에 의한 아픔과 고통을 후세에 전하는 존재로 써 그려왔다. 그러한 원폭의 「피해자」이고 평화의 메신저라는 일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묶었다. 이것에 대해서 요시다 감독의 『거울의 여자들』은 원폭을 철저히 표상불가능한 것으로 써 숨겨진 비극의 이야기를 그렸다. 원폭이라는 것은 「잃혀진 이야기」를 가리키고 여성은 이야기가 잃혀져 버렸다라는 역사의 정신적 외상의 증인으로 써 그려지고 있다. 사이또우는 이 작품이 원폭에 대해 새로운 영화의 도전이라고 평하는 한편, 이야기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로 써 역사 속에서 여성의 전쟁에 어떻게 관계되어 왔는가를, 다시 물어 고칠 수 있는 과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후에 사회자이기도 한 리퍼트 水田堯 (미즈타 아키라) 씨는 영화 탄생의 해로 써 기억되고 있는 1895년, 즉 원폭 투하의 정확히 50년 전의 해는 독일의 물리학자 W.K. 뤼트겐이 X 선을 발명한 해이기도 하다는 흥미 깊은 말로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 현재도 뤼트겐이 아내인 벨테부인의 손뼈를 찍은 사진이 보존되고 있어, 이것이 정말로 「방사능과 영화가 연결된 순간」의 기록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X 선이 신체를 파괴할 가능성을 숨기고 있다는 것과 X 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내부를 가시화할 수 있는 것은 「사물을 보는 것에 의해서도 사물을 파괴한다」라는 방사선과 영화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 대해서는 원폭을 표현하고 피해자나 생존자를 그리는 것으로 원폭영화가 하나의 장르로 써 성립되어 있지 않



리퍼트 미즈타 아키라 교수님



吉田 喜重 감독님



齊藤 綾子 교수님

는가라고 되물음을 행하고 있다. 나아가 리퍼트 미즈타 아키라 씨는 세계의 원폭영화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폭넓은 퍼스펙티브로 부터 패널리스트의 보고를 한데 모아 정리했다.

심포지움 후반에는 객석으로 부터 원폭영화에 있어서 여성의 어떤 위치에 놓였는가의 질문이나, 요시다 감독의 원폭영화의 시점에 묻는 질문 등이 던져졌고 계속해서 「여성의 시점의 평가」「원폭체험의 영화화」라는 관점으로 부터 충실했던 디스커션이 이루어졌다. 「원폭영화라는 장르」(리퍼트 미즈타 아키라 씨)를 논하는 기념할 만한 심포지움이 되었다.

본 심포지움을 기획했던 젠더_여성학 연구소의 矢木公子 (야기 기미코) 소장은 전후 60년이 되는 금년, 나아가 패전 직후의 여성을 제목으로,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가을 『Beate의 선물』을 시작한 영화를 城西國際大學 東金 (토우가네)에서 상영할 예정으로, 본 심포지움에서의 테마가 「평화와 젠더」에 관한 기획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 기대되어 진다.



학교법인 조사이대학 창립40주년 기념 동경 기오이조 캠퍼스 개설 기념 추기 심포지움_강연회 지금, 새롭게 되는 대학교육을 향해서

<참가비 무료> <선착순·예약필>

○조사이대학 이학부 주최

9월17일(토) 14:00~15:30

「스바루 망원경에서 본 우주」
(국립천문대 대장) 海部 宣男

○城西國際大學 복지종합학부 주최

10월1일(토) 14:00~16:30

「함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사회사업대학 학장) 大橋 謙策
(환경청 사무차관) 炭谷 茂
(마이니씨 신문사 사회부 부장) 長野沢 和弘

○城西國際大學 비교문화 연구소 주최

「에도시대의 일본인은 일본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1. 10월22일(토) 13:00~17:00

(교토조형미술대학 학장) 芳賀 徹
(城西國際大學 교수 헬벨트 프로축)
(후쿠오카교육대학 교수) 板坂 耀子
(국제기독교대학 교수) 小島 康敬

2. 10월29일(토) 13:00~17:00

(學士院) 源了圓
(교토대학 명예교수) 浜田 啓介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和比古
(菅江真澄研究会会长) 田口 昌樹

○城西國際大學 인문학부 주최

11월12일(토) 13:30~15:00

「연애사상의 역사」
小谷野 敦
(비교문학연구자·문예평론가／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객원조교수)

○城西國際大學 약학부 주최

12월3일(토) 13:30~16:00

「미래의 의료, 약학교육으로 할수 있는 일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
(지바Ken 위생연구소 소장／지바Ken 토우가네 병원 부원장) 天野 恵子
(지바대학 대학원 약학연구원 교수) 上野 光一
(토후크대학 대학원 의학계 연구과 교수) 相場 節也
(城西國際大學 교수) 和田 誠基

○조사이대학 약학부 주최

12월10일(토) 14:00~17:00

「미래의 의료, 약학교육으로 할수 있는 일
—의료에 있어서의 마음과 기술—」
1. 「의료에 있어서의 마음과 기술」
(쓰와대학 의학부 교수) 中島 宏昭
2. 「유기의 빛으로 미래를 비추다—첨단기술과 창조교육—」
(야마가타대학 공학부 교수) 城戸 淳二



교통안내

- 地下鉄有楽町線 銀町駅 1番出口より徒歩3分
- 地下鉄南北線・半蔵門線 永田町駅 9番出口より徒歩5分
- 地下鉄丸の内線・銀座線 赤坂見附駅 銀座口より徒歩8分
- JR中央線・総武線 四谷駅より徒歩10分



学校法人 城西大学

JU 城西大学／城西短期大学 **JIU** 城西国際大学

〒102-0094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3-26 TEL.03(6238)1300

学校法人 城西大学 <http://www.josai.jp/>
城西大学 <http://www.josai.ac.jp/> 城西国際大学 <http://www.jiu.ac.jp/>

学校法人 城西大学 國際學術文化振興센터

〒102-0094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3-26
TEL 03(6238)1300 FAX 03(6238)1299